"꼴찌여도 괜찮아"… 올 시즌도 이어진 '행복 배구'

AI페퍼스 2022~2023시즌 결산

5승 31패 승점 14…2연속 최하위
수비·끈기 '강' 블로킹·체력 '약'
다음 시즌 FA때 전력 보강 필요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배구단이 지난해 12월31일 경상북도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여섯 번째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17연패 뒤 시즌 첫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어렵다. 쉽지 않다. 힘들다"

이경수 AI페퍼스 감독대행의 2022~2023시즌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세 가지 말이다.

광주 연고의 여자프로배구 '막내 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다사다난했던 두 번째 시즌이 지난 18일 IBK기업은행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21~2022시즌 3승 28패, 승점 11로 최하위에 머물렀던 AI페퍼스는 이번 시즌 5승 31패, 승점 14로 역시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2승을 더 수확하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공수 모두 고전했던 지난 시즌과는 달리 수비만큼은 긍정 평가를 끌어냈다. 시즌 개막 직후 17연패에 빠진 후 국가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을 GS칼텍스로부터 트레이드 영입한 것이 전환점이었다.

오지영은 맏언니로서 김형실 감독의 사퇴 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빠르게 추스렸다. 코트에서는 이한비와 함께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했고 선수들에 파이팅을 불어넣고 끈기 있는 플레이를 주문했다.

광주 팬들의 응원 역시 뜨거웠다.

선수들의 열정에 페퍼(pepper)의 짝인 솔트(salt)를 자처했다. 매 경기 많은 팬들이 외치는 "페! 퍼! 빠샤!" 구호에 선수들은 후반기 들어 후춧가루 부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얇은 뎁스는 한계로 돌아왔다. 높이에서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상대 공격이 네트를 편안히 넘었고 수비 부담이 늘어나 체력 저하로 이어졌다. 결국 접전 상황에서 범실을 남발하며 선수들이 힘겨워하는 것이 눈에 띌 정도였다.

체력 부담 탓에 부상자도 속출했다. 지민경과 하혜진이 이미 시즌 시작 전부터 부상으로 전력 이탈한 상황에서 주장 이한비를 포함해 구솔, 문슬기, 박은서, 서채원, 염어르헝, 최가은 등 선수 대다수가 크고 작은 부상에 신음해 정상적인 경기를 펼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시즌 막바지에는 사실상 교체가 없다시피 경기를 운영하기도 했다.

아헨 킴 신임 감독이 지휘할 다음 시즌에는 전력 보강이 필수적인 이유다. 특히 AI페퍼스는 주축인 이한비가 FA 자격을 얻는 가운데 타 구단에서는 김연경을 비롯해 김수지, 김희진, 문정원, 박정아, 배유나, 전새얀, 정대영, 채선아, 한송이, 황민경, 황연주 등 주전급 자원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이미 AI페퍼스는 취약 포지션이었던 세터에 이고은을 FA 영입하며 공격적 투자를 선보인 바 있다. 페퍼저축은행이 아헨 킴 신임 감독을 위해 이한비와 함께 취약 포지션인 센터와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의 FA 계약에 성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취임 선물임에 분명하다.

아헨 킴 감독은 지난 14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결정력이 있고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주 중요하다. 여섯 자리 로테이션 어디에 들어가도 위협적인 선수가 필요하다"며 "센터와 아웃사이드 히터가 필요하다. 백업 멤버도 두터웠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AI페퍼스는 진정한 호남 연고 구단으로 거듭날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여름 선수단 숙소와 연습장의 광주 이전이 완료된다. 이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체력 안배는 물론 부상 방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아울러 팬들과 배구 꿈나무들과도 더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 지역 배구 저변 발전도 기대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 김선빈·김도영, 30일 KBO 미디어데이 참석

올시즌 프로야구 개막을 알리는 미디어데이가 오는 30일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2023 신한은행 SOL KBO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0개 구단 감독과 SSG 한유섬·박종훈, 키움 이정후·김혜성, LG 오지환·박해민, KT 박경수·강백호, KIA 김선빈·김도영, NC 손아섭·구창모, 삼성 오재일·원태인, 롯데 안치홍·박세웅, 두산 허경민·양의지, 한화 정우람·채은성 등 각 구단의 주장과 대표 스타들이 참석한다.

올해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야구 팬들도 미디어데이 행사장에 초대된다. KBO 리그 41주년을 맞아 총 410명의 야구 팬에게 입장권이 제공될 예정이며, 입장 인원은 공식 홈페이지 추첨(400명) 및 사전 이벤트(10명)를 통해 선정된다.

입장권 신청은 22일 정오부터 자정까지 KBO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팬들의 안전한 관람과 편의를 위해 지정좌석제(랜덤 배정)로 운영될 예정이며 사전 이벤트 안내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KBO 홈페이지 및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행사에 앞서 입장권을 소지한 팬 중 110명을 대상으로 10개 구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사인회가 개최되고, 오후 2시부터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가 시작된다.

미디어데이는 총 2부 행사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10개 구단 감독들의 출사표와 올 시즌에 임하는 각오 등을 들어볼 수 있다. 2부에서는 선수단을 대상으로 올 시즌을 앞둔 소감 발표와 미디어 인터뷰가 진행된다. 이후 팬들이 남긴 음성메시지 질문에 선수가 직접 답변하는 '보이스 오브 팬 2' 이벤트가 진행되며,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전 접수된 질문 중 일부가 현장에서 음성으로 질의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오타니의 日, 美 꺾고 14년 만에 WBC '전승' 우승 일본 야구 대표팀이 22일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결승에서 미국을 3-2로 꺾고 정상에 오른 뒤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전승으로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AP/뉴시스

광주체육중 배드민턴, 중·고 연맹 회장기 전국 제패

3학년 단식·전학년 복식 등 金 4

광주체육중 배드민턴부가 '2023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회장기학생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휩쓸었다.

22일 광주체육중에 따르면 광주체육중 배드민턴부가 지난 13~21일 경남 밀양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여중부 3학년 개인 단식과 모든 학년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청소년대표인 김나연과 권혜원은 여중부 3학년 복식경기 결승에서 성지여중을 2-0(21-3, 21-12)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김나연, 권혜원 조는 이 대회 학년별 복식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최강의 면모를 과시했다.

김나연은 여중부 3학년 단식 결승에서도 마산 성지여중 이송현을 2-0으로 제압하고 2관왕에 올랐다.

이윤서와 김민은 여중부 1학년 복식 결승에서 양동중을 2-0으로 격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여서영과 손수빈은 여중부 2학년 복식 결승에서 청송여중에 2-0 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광주체육중은 전 학년 복식경기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준재 광주체육중 교장은 "올해 열린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 기쁘다"며 "이번 우승이 선수들에게 훌륭한 성장의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수피아여고 농구, 제60회 춘계 중고농구연맹전 준우승

결승서 분당경영고에 63-66 패
센터 고현지 리바운드 최우수상

광주 수피아여고 농구팀이 제60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수피아여고는 22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분당경영고에 63-66으로 져 준우승에 그쳤다.

수피아여고는 대전여상고(125-54 승), 분당경영고(58-68 패), 숭의여고(75-69 승)와 속한 A조 예선에서 2승 1패를 기록, 조 2위로 8강에 올랐다.

수피아여고는 8강서 효성여고를 71-63, 준결승서 온양여고를 82-76으로 각각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수피아여고는 결승에서 다시 만난 분당경영고를 상대로 설욕전을 펼쳤으나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센터 이가현(1년)의 활약을 앞세워 1쿼터를 17-14로 앞서 나간 수피아여고는 2쿼터에서 상대에게 3점포를 연달아 허용하며 28-31 역전을 허용했다.

3쿼터에서도 밀리며 44-54로 크게 뒤진 수피아여고는 4쿼터에서 포워드 조민하(3년), 센터 고현지(3년), 이가현의 활발한 득점을 앞세워 추격에 나섰으나 끝내 승부를 뒤집지 못하고 3점 차 패배로 마쳤다. 고현지는 이번 대회 총 78리바운드, 경기당 평균 13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리바운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중권 수피아여고 농구 감독은 "아쉽지만 준우승으로 시즌을 시작해서 기쁘다"며 "주축선수들의 부상 등으로 동계훈련기간 손발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연속 경기로 인한 체력적인 한계에도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줘 고마울 뿐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